

# 강진군, 신년 맞이 우수장 대성황

### 300두 출품 · 강진군 농업의 핵심 소득원 부상

### 우수장 방문농가 300여명 신년 맞이 떡국 행사

지난 4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강진군 군동면에서 우수장 대목장이 개장했다. 이날 우수장에서는 한우 사육 농업인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년 첫 경매가 열렸다.

지난 4년간 한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맞춤형 한우개량 사업과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활기를 띤 분위기 속에서 경매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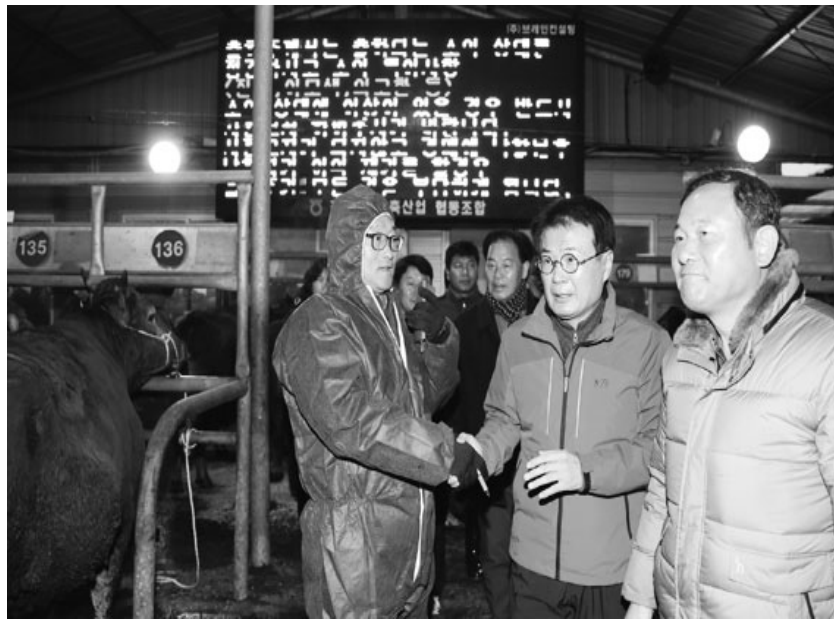
특히 이날은 강진완도축협이 주관으로 축산을 사랑하는 모인인 축사모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우수장을 방문한 300여 명의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신년 맞이 떡국 나눔행사'를 가져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한우 경매시장 출품두수는 총 300두로 송아지 가격은 비육우가 평균 368만 원, 번식우는 609만 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성

우 역시 생체 1kg당 9500원에서 1만 원대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진군은 매년 한우산업 시책을 확대 추진해 한우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한우산업 4대 육성정책인 '맞춤형 한우개량', '생산비 절감', '착한한우 명품화', '직거래유통 활성화'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 소득 창출을 이루내고 있다.

주요 세부시책으로는 '맞춤형 한우개량사업'으로 육량과 등급률을 향상시키고,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해 혈통 좋은 우량송아지 생산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축산기자재 공급'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명품화'로 농가의 역량 강화와 한우산업 발전에 총력하고 있다.



지난 4일 이승욱 강진군수가 이끈 아침 대목장을 찾아 한우산업의 동향을 점검하고, 방문 농가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 하고 있다.

직거래 유통분야에서도 인터넷 쇼핑몰 입점과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고, 서울 코엑스, 부산 벡스코 등 전국 농특산물 박람회 참석과 대도시 소비자 초청으로 강진착한한우 인지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출하 농가 및 자원봉사자로 나선 축사모 회원들을 격려하며 "강진군 전체 한우 농가들의 역량강화와 화합을 통해 서로 힘을 합쳐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신안군 제29대 박종열 부군수 취임

### 세계적 해양생태의 중심으로 새롭고 활기차게



신안군은 1월 2일 군청 공연장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대 부군수로 박종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박 부군수는 "전국 제일의 해양생태자원 보고로 최근 모든 분야에서 전국 섬들 중에서 가장 눈부신 도약을 하고 있는 신안군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30여년간의 공직경험과 지식을 신안 발전에 쏟아 부어 민선기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일의 우선은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두고 추진할 것이며, 군의회와 협력하고 언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관기관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화합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안군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무안군, 스마트팜 영농실습장 운영

무안군이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영농실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실습장을 임대하고 농업경험과 영농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도비 3억 원을 확보해 청계면 청천리에 첨단스마트팜 연동하우스 1,404㎡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했다.

영농실습장은 농장을 임차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이 본



무안군이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실습장

인의 책임 하에 영농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작물 입식 비용 및 영농에 필요한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는 모평마을 숲

## 함평 모평마을 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함평군은 해보면 모평마을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가치 조사·평가를 실시해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지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함평 모평마을숲은 해보면 상곡리 일원 10,925㎡

규모의 방풍림이다.

파평 윤(尹)씨의 씨족 촌락이 형성된 무렵 마을 주변 해보천으로부터 서풍을 막기 위해 조성됐으며, 500년 된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지역유·무형 자산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생길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완도군 만감류 브랜드 '자연그대로' 수확

완도군에서는 부지화, 레드향, 천혜향 등 완도자연그대로 만감류를 본격 수확한다.

레드향과 부지향은 1월 7일 첫 수확하여 설 명절에 맞춰 본격적으로 출하되며, 천혜향은 1월 중순경 수확할 예정이다.

올해 만감류 예상 생산량은 약 5.5톤이다. 완도자연그대로 만감류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해풍을 맞고 자라며 일조 시간이 길어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나다.

특히 작년 겨울부터 기상 여건이 양호한 덕에 과피와 교육이 분리되는 공동과 현상이 줄어들어 품질 좋은 만감류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완도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신소득 작목으로 만감류를 재배 중이며, 시설 재배 면적은 약 2.9ha이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는 만감류 재배 농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당도와 산도를 측정하였으며, 당도 13Brix 이상, 산도 1.3%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



고 있다.

시설감귤연구회 김광호 회장은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특히 만감류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맛과 향이 좋은 완도자연그대로 만감류를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김준열 소장은 "완도자연그대로 만감류가 완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특산물로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 영암군, 올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영암군은 8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기준은 영암군 관내 거주자로 소득기준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 요인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개월 미만의 영

유아가 대상이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전 생애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영양섭취, 모유수유의 중요성, 체계적인 식생활관리 교육과 쌀, 분유, 우유 등 11종의 맞춤형 보충식품 영양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